

손학규 한나라당 탈당

■ 정치권 반응

한나라 “당혹·배신감”... 인신공격까지

한나라당은 19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강재섭 대표 등 지도부는 일단 “안타깝고 애석하다”고 말을 아끼면서 손 전 지사가 지금이라도 탈당 결정을 철회하고 당과 국민을 위해 경선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예견했던 수순”, “명분없는 말갈아타기”, “열린우리당 집권용 불쏘시개 탈당”이라는 비판도 나왔고, 지난 97년 이

朴 “끝까지 같이 갔으면 했는데...”

인재 의원의 신한국당 탈당 사례를 거론하면서 “탈당하고 나간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인신공격성 비난도 제기됐다.

강재섭 대표는 “애석하다”면서 “탈당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탈당 선언을 철회하고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권 교체의 한 길에 힘을 합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은 전했다.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손 전 지사의 회견 가운데 당 비판 부분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반박한 반면, 이 전 시장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 구체적 대응에 있어서는 ‘온도차’가 감지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 기자회견이 예정된 19일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도중 박재완 비서실장이 전해주는 쪽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됐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김천지역 당직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끝까지 같이 갔으면 했는데

떠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회견 내용을 보고 반문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당내 사정을 잘 모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당내 민주화가 이뤄졌고, 부패·비리와 고리를 끊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했으며 변한 게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시장은 이날 용인지역 당직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 전 지사는 오랫동안

李 “정권교체 목전두고 아쉽다”

한나라당에서 함께 일했고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열원인 정권교체를 목전에 두고 당을 떠나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어 “한나라당은 힘을 모아 정권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손 전 지사가 (경선 룰과 관련) 당에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이어 “명분이 없는 탈당”이라며 “손 전 지사가 자기 친정에는 엄청난 타격을 주고 저쪽 선거구도에 일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여권으로의 말갈아타기”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법여권 “용기 있는 결단” 적극 환영

법여권은 19일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한나라당 탈당 선언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법여권은 특히 한나라당 내 대표적인 개혁인 사로 분류되던 손 전 지사의 탈당이야말로 한나라당이 수구보수적 정당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한나라 냉전 향수병 세력만 남아”

주장하면서 법여권과 한나라당간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상당한 비중을 뒀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손학규식 정치가 한나라당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반증으로서 이제 한나라당에는 냉전 향수병에 휩싸인 세력만 남았다”며 “평화개혁세력은 중심을 잡고 단결해 한나라당에 대한 정체성적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

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여권 입장에서 손 전 지사는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를 수 있어 가장 두려운 후보보였다”며 “손 전 지사의 탈당으로 인해 이번 대선은 구 ‘민정당·공화당’ 대 ‘21세기 정당’의 대결구도가 형성됐고, 여권은 21세기 정당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신당주진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손 전 지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나라당은 손 전 지사가 밝힌 대로 군사독재 진당, 개발독재의 잔재를 하루 속히 청산하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의 장으로 나을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법여권은 손 전 지사의 탈당선언이 지지부진한 법여권 통합신당 주장을 기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법여권에 미칠 유불리는 당분간 행보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보였다.

특히 통합신당주진모임과 민주당은 손 전 지

사의 탈당이 우리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우리당과 미묘한 신경전 양상을 빚기도 했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한나라당에 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우리와 대권행보를 같이 한다면 국민이 전혀 감동하지 못한다”며 “새 정치질서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신당모임 “與 추가 탈당 계기될 것”

평화개혁세력 대통합의 콘셉트에 맞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손학규식 대권정치로 나타난다면 유리하게 전혀 없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우리당 내에서 많은 중도개혁 성향의 인사들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정치질서 창출을 위해 진로를 재설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김홍업씨 영입 전략 공천”

4·25 무안·신안 보선

일부의원·신청자 반발

민주당은 19일 중앙당사에서 공직 후보자심사위원회(공특위)를 열고 4·25 무안·신안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한 결과, 무소속 출마자를 선언한 김홍업 전 아래재단 부이사장을 민주당으로 영입, 전략 공천한다는 데 원칙적

로 반대, 부과·비리와 고리를 끊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했으며 변한 게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시장은 이날 용인지역 당직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 전 지사는 오랫동안

김홍업씨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김씨가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을 경우 공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로 후보를 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김씨를 전략 공천하는데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보선 출마를 위해 공천 신청을 한 인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까지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에 후보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김호산 통일농수산사업단 기획위원장과 이재

현 전 무안군수, 모세원 민주당 전략 기획위원장, 박세준 전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등 4명이다.

한편, 나주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손기정 전 전남도 부지사, 김옥기 나주교육진흥재단 이사, 전준화 축협조합장 등이 공천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의원 후보는 유우근 민주당 여수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순천시의원 후보는 유해숙 청암대학 겸임교수로 확정됐다. 나머지 4개 지역 기초의원 후보는 오는 21일 공특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에 손잡고... ‘3월 국회’ 잘해 봅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통합신당 최용규,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민주당 김효석, 국민신당 정진석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9일 국회에서 3월 임시국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무능한 서울대 기득권에만 집착”

민노당 노회찬 의원 비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서울대에서 열린 초청 강연문에서 “서울대는 ‘교육양극화’의 주범이자 우수한 인재를 독점해 기득권 형성에만 열을 올리는 무능한 대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서울대가 대외적으로 도쿄(東京)나 베이징(北京)에 훨씬 뛰어넘어져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좋은 학생을 ‘싹쓸이’해 대학 서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대 총장만큼 쉬운 직업도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노 의원은 “이처럼 기득권 집단인 서울대는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 막강한 인맥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는 데 더 신경 쓴다. 이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서울대병’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운찬 전 총장이 요즘 태어났다면 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구 여권에서 정 전 총장이 정계 개편 주자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무능과 실정으로 일관한 구 여권은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며 “정 전 총장이 그들의 ‘대국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천 민주 대표경선 출마 선언

‘與 중도개혁 의원과 신당 창당’

박상천 전 의원은 19일 광주지역 국회 출입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폭풍이 불 때는 능력 있는 선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장상현 대표 체제로는 경계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역부족”이라며 “대표가 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중도개혁 통합신당을 창당, 정권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도개혁 신당 창당과 관련, 박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중도성향 의원들은 탈당을 해서 민주당과 함께 중도신당을 창당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정통 중도개혁 정당이므로 해산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또한 “김근태·정동영 전 의장과 청정 의원 등 열린우리당 간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중도통합신당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들이 참여한다면 한나라당은 대선 국면에서 중도개혁신당을 ‘열린우리당 2중대’라고 비난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도 고개를 돌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제2회 출판부 사학부 출판부 조성문 교수 전자책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 990점 만점반
- 800점 목표반
- 600점 목표반
- 500점 학생반

통해 드디어 학원에 100년 만에 만점으로 학생들이 예술의 거리 → 중앙초등학교 후문 시거리 입구 ☎ 062-222-6253

동아외국어학원

Cell Banking

생명암은 건강할 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해 있다가 주요 질병 발생 시 치료에 사용하는 1인 맞춤치료의 시작입니다.

한국은 생명암은 1인 맞춤치료의 시작입니다.

한국은 생명암은 1인 맞춤치료의 시작입니다.